

隨想



美國에서의

美國에서 벌써 다섯번째의 어버이 날을 맞으면서 三男妹 大學生 아버지로서 떠들석한 行事보다는 조용한 時間을 가져본다.

美國의 어버이날도 韓國과 같이 모든 子女들이 낳으시고 길으시는 父母님 은혜에 감사해서 아름다운 불고 또는 하얀 카네이션을 勳章처럼 부모님 가슴에 달아준다. 그리고 新聞 TV 등 Mass comm 들은 제각기 앞을 다투어 約束이나 한듯이 子女들은 父母에게 孝道하고, 복종하고, 책망과 敎訓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목에 힘을 준다.

그러나 우리 어버이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과연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만큼 저들에게 그 무엇을 하였는가 스스로 反問해본다.

오늘날 美國을 보라. 근간의 TIME 誌가 Cover Story로 다루었던대로 “Kids who sell crack (애들이 마약장사를 한다)”라는 소름끼치는 社會像을 설명하면서 마약전쟁 또는 마약 亡國論까지 대두되어 가고 있다. 韓國에서도 大統領選舉

와 國會議員선거도 끝났지만 嶺南·湖南·忠淸지역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있다.

어느 교포 Columrist 말대로 “누가 嶺南·湖南·忠淸을 나누어 놓았는가?”라고 어른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詰句를 등감하지 아니할수 없는 實情이다. 近代版 三國時代를 연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21世紀를 치닫고 있는 이時代에 고작 어른들이 子女들에게 준 敎訓이 이것이던가.

Kimpo Airport를 떠나는 이민자들이나 在美僑胞에게 왜 사랑하는 祖國을 떠나 美國에 왔느냐 하면 異口同聲으로 “아이들 敎育때문이지요”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집을사고 점포를 사고 Business를 시작하고 보니 매일 어김없이 찾아오는 월부금불입때문에 Two jobs, Three jobs 쫓다보니, 7days 그리고 24 hours 일한다. 내 아이가 學校에 가는지 공부를 하는지 못된 친구를 사귀는지 알바입니다. 밤늦게 집에서 곤이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새

벽별을 보고 일터로 나간다. 아이들과 對話의 時間이 있겠는가. 저들의 욕구를, 저들의 고민을 위하여 같이 울고 웃어 줄 時間이 있겠는가 말이다. 더구나 美國의 學校에서 가르치는 “네멋대로 살라”는 自由主義 敎育과 “많이 먹고 건강하게만 살아달라”라는 韓國가정의 일등만 하라는 第一主義, 영웅주의 Culture 하에서 난류와 한류가 부딪치는 그 지역에서 우리의 2世들은 방황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LA의 KKK團의 Member 중 韓國人 청소년이 상당수 끼어있다 한다.

“父母님이 원하는 일등을 못해 먼저 갑니다”라는 遺書를 남기고 자살한 어느교포 여학생의 遺書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마약에 혼전 섹스에 알콜에 전염되어가는 우리의 子女들이 美國에 수없이 많다. 공부는 않고 아무 Issue도 없이 화염병을 던지며 데모에 열중하여 청춘을 허비하는 우리의 子女들이 韓國에도 수없이 많다.

韓國이나 美國이나 우리 어

아버이 날



陳 今 燮

<在美韓國辨理士·藥學博士>

비이들은 특히 家長인 우리 아버지들은 저들에게 주지않았어야 할것을 주었고, 보여주지 않았어야 할것들을 보여주었기에 저들이 어두운 소용돌이에 말려들고 있지않은가. 그중에 우리는 우리의 子女들에게 꿈을 주지 못했음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다.

獨逸의 宰相 비스말크는 “꿈이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외쳤다. 美國의 King牧師는 “Have a dream, have a dream(꿈을 가져라)을 외치며 Washington 광장을 人山人海로 메꾸었다.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은 오늘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왜? 비록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 했지만, 즉 富를 하나도 가진것이 없지만 생각하고 있기에 來日이 있기 때문이다.

大統領과 大統領후보가된 子女를 길러낸 케네디집안의 家長인 Joseph Kennedy는 가족들의 토론을 잘하게 했다. 그는 자녀들은 은근히 선동하여 자기 아버지와 전연다른 논쟁을 진행시켰다고 한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능가해야하고

아이들은 또 자기의 아버지를 능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비로소 가족을 통한 人間의 發展이 있고, 그發展이 쌓여서 人間의 진보라는 거대한 피라미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 피라미트의 거대한 거점이 되는것이 家庭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그 家庭의 핵심이 되게하며 산다는 일에 대한 哲學과 信仰을 주는 자가 곧 아버지인 것이다.

그러기에 과자의 매력에 못이겨 아버지가 숨겨둔 도망자를 兇병에게 철없이 밀고한 배신한 아들을 자기손으로 죽여 버리는 것이 “메리메”의 걸작 “마테오 팔고오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순종하여 100歲때에 얻은 외아들을 祭物로 바칠려고 칼을 들었던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건을 근일 聖經에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어느 時代이건 人間社會를 改善해 나가는것은 “비범한 人間의 개성”인 것이다. 그리고 이 비범한 人間의 개성을 길러내는 것이 뭐니뭐니 해도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가정에서 비

롯되며 이 비범한 가정의 家風은 아버지의 哲學과 信仰과 권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가정의 개성이 여러가지 理由 때문에 짝어나가고 사라져가고 있는 이 복잡한 현대를 살고 있는 가련한 아버지들이여! 이 거대한 변화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人間, 비범한 人間을 길러내기 위해 다시 한번 아버지의 哲學과, 信仰과, 권위를 회복하지 않으시렵니까? 어떻게요. 가르치는 아버지가 아니라 보여주는 아버지가 되자!

마약을 만들어 놓은 어른들의 잘못을 만분의 일이라도 속죄하는 심정으로 이 마약해독제를 발명하여 출원한 在美교포 Dr Lee의 독백을 되짚으며 나의 子女 三男妹에 앞에 아버지로서 무엇을 보여주었던가 스스로를 자문해 본다.

(Washington BSKB 特許法律事務所에서)